

리버티대서 ‘제2회 유니파이 코리아 서밋’ 개최

임현수 목사 “북한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

9월 5일~6일 리버티 대학교에서 제2회 유니파이 코리아 서밋(Unify Korea Summit, UKS)이 열렸다.

이날 임현수 목사는 북한 수감 생활과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다큐멘터리 영화 <비온드 유토피아>에 출연한 김성은 목사는 탈북 사역에 대해 나누었다.

임현수 목사는 2015년 1월 평양에서 체포되어 2017년 8월 풀려날 때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학대를 경험했고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독서가 모두 금지되었지만, 성경을 소지할 수 있었다며, 이 자유를 “사막에서 살아있는 물을 발견한 기쁨”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기도와 암송, 성경 읽기로



9월 5일(목)과 6일(금) 리버티대학교에서 제2회 유니파이 코리아 서밋(Unify Korea Summit, UKS)이 열렸다. © Liberty University

수감 생활을 견뎠고, 그에게서 힘을 정보를 찾아본 교도관들은, 그의 의를 찾기 위해 온라인에서 그의 설교를 들으며 마음이 부드러워지

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공산당 핵심 지도자의 변화를 보고, 북한이 개방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북한은 곧 주님의 군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북한에서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이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북한의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의 지름길이다. 북한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가장 비옥한 땅이다”라고 말했다.

임현수 목사의 이번 강연은 리버티 대학의 ‘존 롤링스(John W. Rawlings) 신학대학원’, ‘글로벌 학과(Global Studies Department)’와 ‘유니파이 한국(Unify Korea) 학생 클럽’이 주최했다.

9월 5일 밤 마운트뷰 동문 연회장(Montview Alumni Ballroom)에서 갈렙선교회 설립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김성은 목사가 탈북자 구

출에 대해 나누었다. 김성은 목사는 2000년에 갈렙선교회를 설립해 탈북자를 돕고 선교사로 훈련시켰으며 지금까지 북한 정권으로부터 1,026명을 구출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가난했지만, 그리스도 안의 만족에 대해 배웠다며,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복음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항상 예수 안에서 감사와 자유를 누렸다”고 했다.

13세 때 어선의 요리사가 되었고, 북한과 중국 국경으로 여행하며 탈북자들의 고난을 목격하며, 탈북자를 돕는 소명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북한 탈북자인 아내와 함께 탈북자를 위해 일했고 어선에서 일한 경험 덕분에 바다로 탈출을 시도하는 하는 탈북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 조셉 리 기 → 2면에서 계속

미 법원, ‘동성연애 반대’ 기독교 대학의 성경적 입장 지지

항소법원 “연방 기금 박탈할 수 없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동성 연애에 반대하는 성경적 입장을 이유로 기독교 대학의 연방 기금을 박탈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제9순회 연방 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지난주 ‘헌터 대 교육부’(Hunter et al. v. Department of Education, et al.) 사건에서 타이틀 IX 연방 민권법에 따라 만장일치로 기독교 학술 기관의 종교적 면제를 유지하기로 판결했다.

남은 쟁점은 항소법원이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성소수자 학생들이 기독교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을 부활시킬지 여부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밀란 D. 스미스 주니어 순회 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 대법원과 우리 법원은 국교금지조항(Establishment Clause)과 일치한다고 반복적으로 인정해 온, 종교에 대한 정부의 백년 넘는 지속적인 관행이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판사는 “학교가 면제를 주장할 때, 교육부는 해당 학교가 종교 단체의 통제를 받는지와 타이틀 IX가 그 단체의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러한 걸음으로 드러난 중립적인 종교적 면제가 국교금지조항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200여 개의 기독교 학술 기관이 속한 ‘기독교대학협의회’(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



베일러 대학교 파운더스 홀. ©baylor.edu

sities, CCCU)는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수세기 동안 확립된 법을 따른 법원의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검토되었으며, 미국 항소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렸다”

고 밝혔다. 반면, 기독교 학교와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종교적 면제 책임 프로젝트’(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 REAP)는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법원만으로는 종교 학교에 다니는 LGBTQA+ 학생들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할 수 없다”며 “이들이 겪는 피해를 폭로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이번 판결로 피해를 입은 자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REAP은 2021년 3월, 20개 이상의 종교 대학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믿는 30명 이상의 성소수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요 원고인 밥 존슨 대학교 졸업생 엘리자베스 헌터는 학교 관계자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무섭고 가혹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김유진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 / 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 / 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 상법/부동산법 ■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동환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에 대한 스트레소에서 자유로워지는 경연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대면·전화상담 예약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 연방ITC: 30% 이상
 ☑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SEEK HIS FACE!”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일시 2024년 9월 22일(주일) 4:00PM **장소**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92833)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온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며 침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 밖에 없는 위기상황입니다. 미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성회로 모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돌아와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1월의 중대한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다시 회복되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되도록 다민족들이 함께 모여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복된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나라가 위기입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비상한 기도가 요청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들이 뽑히도록 선거일까지 작정기도, 연쇄금식기도 등 특별기도에 참여부탁드립니다”

대회조직
 고문 : 송정명, 김춘근, 김영길, 김인식, 민종기, 최홍주, 한기형, David Andrade, Jorge Fuentes **대표대회장** : 한기홍목사
 공동대회장 : 강준민, 고승희, 고태형, 구봉주, 국윤권, 권혁빈, 김경진, 김기동, 김기섭, 김우준, 김종규, 김태형, 김호용, 김한요, 남성수, 노창수, 민경엽, 박신웅, 박성규, 박성근, 박은성, 백정우, 손창민, 신승훈, 이종용, 진유철, 최영봉, David Diaz
 준비위원장 : 강순영목사(310-995-3936), 공동준비위원장 : 심상은목사(714-722-4805) **사무총장** : 강태광목사(323-578-7933)
 주관 : 다민족연합기도대회준비위원회 **공동주최** : JAMA, OC기독교교회협의회, 은혜한인교회, 미주성서화운동본부
 후원 : 미주복음방송, 시온산재단, CMF 가정선교회, OC기독교전도연합회, OC장로연합회 각 지역교회협의회와 목사회, SOON MOVEMENT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은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셔”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가 장로교-리폼드 미니스트리즈 인터내셔널 팀 사역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커니(James Kearny) 목사를 초청해 기도 세미나를 9월 1일부터 3일까지 개최했다.

셋째 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법’ 주제로 말씀을 전한 커니 목사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어떤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같이, 내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얻은 줄 알고 구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아는 목사님들과 그룹을 만들어서 주 한 시간씩 이웃 동네를 돌며 공원에서 지역 안전과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낙서와 폭력, 마약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했다.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더니 그 공원을 깨끗해지고 안전하게 유지가 되었다”라면서 “그래서 기도를 멈추게 되었는데 다시 공원에 범죄, 쓰레기, 낙서,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공원에 경찰 두 명이 들어왔다. 저희의 기도는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기도를 통해 우리 인격이 예수님과 닮아가는데, 우리의 변화된 인격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이 식은 곳에서 사랑을 볼 때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정직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다.

커니 목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가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의 시간을 보내는데 가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같이 느껴진다. 이 광야의 시작은 개인의 실



LA사랑의교회가 장로교-리폼드 미니스트리즈 인터내셔널 팀 사역을 이끌고 있는 제임스 커니(James Kearny) 목사를 초청해 기도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독일보

“광야는 개인의 실패 때문도,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다”

때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광야의 시간은 위로부터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의도적으로 만드신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잘 참고 견뎌야 하고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

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는 시간은 사실 하나님은 훨씬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광야에서의 느낌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침묵하시는 것 같

다.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기도가 빈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성경이 재미가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기쁨이 없고 불안함이 있을 수 있다. 사역이나 삶에 열매가 없다고 느낄 수 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을 사랑한다”면서 “광야를 통과하는 열쇠로는 끈질긴 기도가 있다. 광야는 잠깐의 시간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자.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고 순종해야 한다. 그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 혼은 깨끗해지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이해하게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일하신다. 광야를 통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킨다”며 “새사람으로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다. 그러나 틀림없는 약속은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면 예수님의 영광에도 동참하게 된다”고 했다. 토마스 멩 기자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9월 조찬기도회

OC교협 부회장 이창남 목사 “염려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옮기라”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신용)는 7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428차 월례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다. 강사로는 OC기독교교회협의회 부회장이자 주님의손길교회 담임 이창남 목사를 모셨다.

조찬 기도회는 OC목사회 이원석 목사의 경배와 찬양에 이어 민김 이사장의 대표기도 후 이창남 목사가 “기도와 간구로”(빌4:4-7)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주 안에서 하는 기도야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 염려와 근심을 내려 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고 역설했다.

합심기도 시간에는 미국 선거, OC 지역사회와 지역교회, 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연합회 사역과 회원들의 성령충만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고 김도영 장로(연합회 감사)가 마무리 기도했다.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는 7일(토) 갈보리선교교회에서 428차 월례 조찬 기도회를 진행했다.

2부 순서에는 윤우경 전 이사장이 OC교계 소식과 하반기 행사 계획을 전했다.

지난 7~8월 제3차 OC영적대각성 새벽기도회와 목회자세미나, 사모블레싱나이트가 은혜 가운데 진행됐고, 목회자 세미나에서 감사한인교회 원로 김영길 목사, 씨드교회 권혁빈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가 교회성장사역의 역할을 위한 목회자의 사명과 실질적인 경험을 함께 나눴다.

한편, 연합회는 선교사자녀 장학금 마련 골프대회를 오는 10월 14일(월) 로스 코요테 골프클럽에서 갖는다. 연합회는 그동안

4회에 걸친 골프대회와 올 해 봄 성가합창제를 통해 모금된 헌금으로 학생 197명에게 98,500불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연합회 골프대회는 푸짐한 경품과 선물, 많은 사람의 참여로 이틀을 알렸다.

골프대회 후원은 팜플렛 광고와 물품후원, 골프선수로 참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참여문의: 회장 신용(562-399-2022), 이사장 민김(213-700-7877), 한성준(714-306-5288), 윤우경 이사(213-500-5449)

연합회 홈페이지: www.ockca.org
이메일: ockca1@gmail.com

→ 1면 기사 <리버티대서..>에 이어서 탈북자 사역을 지속하면서 목이 팔절되고, 척추 수술을 받고, 7살 아들이 목숨을 잃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사명을 붙들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예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을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는 생산적인 일에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가 제작한 탈북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대해서도 간증했다.

이날 글로벌 연구 교수인 팀 창박사가 복한을 위한 기도를 이끌었으며 6일 오후에 경영대학 타운스 강당에서 <비욘드 유토피아>가 상영됐다. 이 다큐멘터리는 PBS에서만 100만 번 이상 시청됐다.

유니파이 코리아 서밋(Unify Korea Summit) 문의 : 팀 창(Tim Chang) 교수, 이메일: ctchang@liberty.edu

→ 1면 기사 <미 법원, 동성연애...>에 이어서

소송 대상에 오른 학교로는 베일러 대학교(Baylor University), 시더빌 대학교(Cedarville University), 리버티 대학교(Liberty University), 오랄 로버츠 대학교(Oral Roberts University), 아주사 퍼시픽 대학교(Azusa Pacific University), 리젠트 대학교 법대(Regent University School of Law), 조지 폭스 대학교(George Fox University), 브리검 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 등이 있다.

2023년 1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명한 앤 에이켄 오리건 연방지법 판사는 원고측이 수십 년 전

의회가 타이틀 IX에 부여한 종교적 면제가 차별적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에이켄 판사는 “원고측은 종교적 면제를 제정한 이들의 차별적 동기에 대한 주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원고들은 의회가 타이틀 IX를 제정할 때 성적 및 성별 소수자에 대한 보호나 차별이 ‘관심 대상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그는 “원고측은 법원이 의회가 종교적 면제를 제정할 때 차별적 목적이 있었는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위에 나열된 요소들에 대한 증거나 주장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촬영한 애니문 메디칼 그룹의 의료진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랑의 빛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 늘 떠올려야”

갈릴리선교교회서 K-타운 교회 연합 집회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을 추구하는 K-타운(코리아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 말씀집회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갈릴리선교교회(한천영 목사)에서 열렸다. 집회에는 LA사랑의동산교회, 예수인교회, LA하나교회, 북미가정교회사역원, 기독일보 등이 협찬했다.

강사로 초청된 김인기 목사(울렌도비전교회, 북미 가정교회 사역원장)는 7일 저녁에 ‘은혜를 늘 붙잡고 사십니까’(마태복음 20:1-16)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교회에서는 남의 상처를 알아야 형제들을 돌볼 수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것이 장사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다. 교회에서는 자기 이익과 효율성을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며 “교인이 세상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데, 교회에서는 그냥 일하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전에 뉴욕 브롱스에서 야채 장사를 했었는데 옆의 집의 아저씨는 정말 잘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 나의 사업체는 얼마가지 못해 망했다. 내가 아저씨보다 훨씬 젊고 영어도 잘하고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면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은혜의 법이라는 것이 있다. 내가 한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보통 오후 5시에 일꾼을 들여다가 쓰지 않는다. 이는 경제 논리에도 안 맞다. 그런데 늦게 온 자를 써서 일하게 한 것은 은혜의 법이다. 이 은혜의 법을 적용하려고 교회에서 우리는 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 그리고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뒤늦게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아침부



소그룹 가정교회 사역을 추구하는 K-타운(코리아타운)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 말씀집회를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갈릴리선교교회에서 열렸다. 김인기 목사. ©기독일보

“신앙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

터 일을 한 사람이 ‘나는 더 받으리 오니...’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늦게 온 사람에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씩씩거린다”라며 “늦게 온 사람

이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먼저 온 사람은 더 받겠거니 했는데 그러지 못해 원망이 나온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원망이

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간에 원망하면 회개해야 한다”고 했다.

또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것이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면 첫째로 살아갈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언어가 바뀌어야 한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빛진 자라는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된다. 우리는 쓸모없는 종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헌신했는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안에서 평안이 없다. 예수를 믿는 세월이 많을수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리마인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마스 멩 기자

고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예배 9월 21일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지내면서 미주한인교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고 이정근 목사의 천국환송예배가 9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 토렌스 산샘교회(담임

윤석형 목사)에서 미주성결교회 교단장으로 거행된다.

1980년 9월 28일, 성결 복음의 불모지였던 LA 코리아타운에 유니온교회를 개척하여, 30년간 목회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LA지역 교회와 성결인들을 섬겼다. 지난 9월 1일 향년 82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문의: 김시온 목사(성결교단 총무 213-407-4569) 최영하 목사(남가주교협 총무 213-999-1923)

장례일정: 9/21(토) 오전 11:30 토렌스 산샘교회: 1814 Abalone Ave, Torrance, CA 90501

부 고
故 이정근 목사
천국환송예배

남가주목교협회협의회 31대 회장이었으며 유니온교회 한도목사이셨던 이장근목사께서 향년 82세를 일기로 2024년 9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기에 삼가 부고를 드립니다.

• 일시: 2024년 9월 21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토렌스산샘교회(윤석형목사 사목) 1814 Abalone Ave, Torrance, CA 90501
• 연락처: 김시온목사(성결교단총무 213-407-4569) 최영하목사(교협총무 213-999-1923)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

9월 22일 주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

“주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하오니 미국을 용서하시고 고쳐주소서.”

미국의 선거를 앞두고 열리는 2024 다민족연합기도대회가 오는 9월 22일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된다.

다민족연합기도대회 준비위원회는 “청교도들이 성경의 기초 위에 세운 미국, 가장 많은 선교

사를 보낸 미국이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과 의원들이 선출되어 미국이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도록 다민족들이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는 준비위원장인 강순영 목사(310-995-3936), 심상은 목사(714-722-4805), 또는 사무 총장 강태광 목사(323-578-7933)에게 하면 된다.

연대 동문회, 무료 의료·건강 박람회 개최

10월 12일 토 8:30~2:30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에서 오는 10월 12일(토)에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에서 LA와 OC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연세 건강 박람회’를 개최한다.

연세대학교는 1885년 설립 이래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사회에 사랑과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으며, 이러한 전통에 따라 연대 남가주 동문회는 올해 연세동문 의사 및 간호사 등 약 30여 명이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여 무료 의료검진과 상담, 세미나를 통한 의료 정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일반 건강검진 및 상담, ● 정신건강 관련 세미나 (치매와 우울증 관리), ● 독감 예방접종, ● 간염 및 혈당 검사, ● 그의 여러 분야의 건강 관련 세미나 등이 제공된다.

이 행사는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가 주관하고 SMC 서울메디컬 그룹, SCAN보험, 미주조선일보가 주최하며, 대한민국 총영사관, GBC, OC한인회가 후원한다.

□ 일시: 2024년 10월 12일(토), 오전 8시 30분 ~ 오후 2시 30분 □ 장소: 은혜한인교회 본당 로비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와 함께하는
YONSEI HEALTH EXPO
의료·건강 무료 박람회

OCT 12, 2024
8:30am - 2:30pm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문의: 818. 497. 6100
714. 501. 0777

유료 피검사 \$20, 독감 예방 주사, 혈당 혈압 검사, 체지방 검사, 경동맥 초음파 검사, 유방암 검사, 사회복지 정보, 치매예방 우울증, 8월 간염 정보

최고의 의료진, 다수 건강보험 회사, 유수한 사업체들이 참여한 무료 박람회에 교인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관 연세대학교 남가주 동문회
주최 SMC서울메디컬그룹, SCAN보험, 미주조선일보 LA
후원 대한민국 총영사관, GBC 미주북음방송, OC한인회

‘2024년 연세 건강 박람회’가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주관으로 10월 12일(토) 은혜한인교회 본당에서 개최된다. © 연세대 남가주 동문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거주 한인 및 지역 주민
문의: 818-497-6100, 714-501-0777 □ 대상: 엘에이 및 오렌지 카운티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Lic#854389 K-Urban Builders Inc.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신학교육의 장애물, AI 기술로 Break through!”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인터뷰

미국에는 남침례 교단 산하 신학대학원이 총 여섯 개가 있다.

게이트웨이(Gateway), 서던(The Southern), 사우스웨스턴(Southwestern), 뉴올리언스(New Orleans), 사우스이스턴(Southeastern) 그리고 미드웨스턴(Midwestern)이 미 남침례교 소속 신학대학원이다.

이중 미주리주 캔자스 시티 북쪽에 캠퍼스를 둔 미드웨스턴 신학대학원은 북미 신학교 중에선 규모로는 2번째이고, 학생 수는 5천4백명, 아시아 부 학생 수는 920명에 이른다. 북미에서 한국어로 가르치는 학교 중에는 가장 큰 규모이다.

석사 과정은 100%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박사과정은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교지에서도 학업을 이어갈 수 있다. 또한 교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때문에 등록금이 학점당 \$300이 안 돼,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장점을 지닌다.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신학이나 목회학 박사과정뿐 아니라 교육학 박사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학 박사 학위는 선교지에서 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육사역을 담당하기에 유용하다.

석사과정은 목회학, 기독교 교육학, 성경 상담학, 신학연구(MTS)/실천신학(MAT), 예배학 석사 과정이 있으며, MTS와 MAT의 경우 총 15과목(45학점)을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기독교 전문 사역자로 사역을 준비하는 평신도 리더에게 적합한 학위이다.

미드웨스턴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은 10년 전인 2014년, 학장으로 부임할 때 ‘평신도 사역자 교육’을 타겟으로 삼았다며, ‘목회자 양성’보다는 ‘평신도 사역자’를 기르는 쪽으로 신학의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신학교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9월 7일 박성진 학장이 LA를 방문했다. 얼마 전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교를 방문하고 돌아온 그의 얼굴엔 흥조가 올라와

있었다. 그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교들이 그에게 자문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곳 선교지들의 신학교와 선교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새 선교 패러다임으로 전환 시급

“선교지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하는 사역이 신학교 사역이다. 교회 개척은 현지어에 능숙해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 교회를 개척하는 데에는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사역으로 방향을 트는 것이다. 선교사분들이 직접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데 현지어가 능숙하지 않은 경우, 우리나라의 유년 주일학교보다는 수준이 높고, 성인 주일학교보다는 수준이 조금 떨어지는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게다가 대부분 무인가 신학교이다 보니 질적으로 떨어지고, 목사안수를 받으면,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니, 제대로 된 말씀을 가르칠 수도 없다.”

“현대 선교가 시작된 이후 70년간 지속되어 온 패러다임을 깨지 않으면, 선교지에서의 선교가 무의미해진다. 과거의 패러다임을 깨기 위해서 4차 산업의 기술들을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언어 장벽을 뛰어넘는 시도를 통해 현지인들이 좀 더 수준 높은 교육을 자국어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는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는 5개 영역(구약학, 신약학, 조직신학, 교회 역사, 실천 신학)에서 가르칠 수 있는 교수들이 필요하고,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통해 50권 6개월이면 번역 가능

그는 현지인 신학교육의 가장 큰 장애물로 ‘자국어 교재의 부재’를 꼽았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4차 산업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그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교과서가 공급되지 않는 것이다. 배우고 싶어도 주로 듣는 강의에 익숙해 있지 스스로 책을 읽고 과제를 한다든지 토론에 참여하는 수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드웨스턴침례신학대학원 아시아부 박성진 학장. ©기독교일보

박성진 학장은 AI 기술을 활용해 현지인들이 현지인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 번역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감수할 수 있는 사람만 있다면, 3, 4일이면 책 한 권을 번역할 수 있다. 저희 학교가 그랜트를 받아서 AI를 통한 번역 프로젝트를 시행했는데 50권의 텍스트북을 번역하는데 6개월이면 충분하다. 저작권이나, 법적인 부분은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15개 공용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은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캄보디아어나, 베트남어 같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선교회들이 협력 사업을 한다면, 4차 산업의 기술들을 활용해 번역의 질이 점차 올라갈 것이고, 이 기술을 통해 최소한 5백 여권의 책이 번역이 될 수 있다면, 신학교육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자국민들을 활용한 선교 교육이 새롭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교는 계속 뒤쳐진다. 자국민을 제대로 신학교육을 해서 자립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한다. 리더십 이양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훈련할 적 없다 보니 선교지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처음부터 신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여서 가지 않으면

약순환만 계속될 뿐이다.”

한국과 북미 신학대들은 입학생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면서 위기를 겪고, 통폐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4년 그가 미드웨스턴에 아시아부 학장으로 부임할 당시 한국 학생 수는 200명 정도였으나, 10년이 지난 지금 720명으로 늘었다. 미드웨스턴은 이 신학교 입학생 수 감소라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는 미드웨스턴은 지속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해 왔으며, 그것을 가능하게 한 요인으로, ‘평신도 사역자 교육’을 꼽았다.

“중요한 것은 신학교가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이전 패러다임을 갖고는 성장할 수 없다. 기존 패러다임을 깨고 나가야 한다. 석사과정이 제가 처음 시작했을 때는 30명밖에 안 되었다. 제가 타겟을 삼은 것은, 평신도 사역자를 교육하는 것이었다. 신학교에 가는 것을, ‘목회자가 되어야지’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올 필요가 없다. 교회 가운데서 신실한 평신도분들을 신학교 교육에 맡기면 이분들이 잘 배워서 사역할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평신도 신학’이라고 생각한다.”

“선교단체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선교지 국립대학 교수로 파송되어서 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분들이 계신데, 5~6년이 지나면 바닥이 드러난다. 그런데 자기 사역지를 떠날 수 없으니 그런 분들이 온라인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찾다가 저희 학교로 오신다. 저희는 처음부터 타겟을 그렇게 잡았다. 저희는 자기 직업을 갖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다. 전임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전문인 사역자도 혼재되어 있다. 저희는 신학교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 교회의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가 함께 그들을 지원하면, 사역자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미드웨스턴은 프로젝트 기반 학습(Project-Based Learning)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처음 수업에 들어가면 그룹을 나눈다. 그 그룹이 한 학기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다. 토론 위주로 진행되는데 교과서를 읽고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 본인의 연구와 토론 기여도, 이런 것이 다 학생들의 평점에 들어간다. ‘신학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 방법론을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다. 이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교수님이 강의한 대로, ‘이게 다구나’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 학생들 스스로 자기의 한계와 교수님의 한계를 발견하면서, 자기가 연구할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한국 신학적 수준 미국에 뒤지지 않아

“자국의 언어로 100% 공부한다. 한국부는 100% 한국어로 수업한다. 한국 교계의 신학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신약쪽은 세계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교수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국부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선교적인 생각은 아니다. 선교사는 가르치러 가기 전에 그 문화와 언어에 대해 배우러 가야 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주디 한 기자

아버지 밥상교회(홀리스미션)
 홀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교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교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교문 : 장재호,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발행인 : 이인규 교문번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혜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초과 Up to \$4,000~ Everyday Allowa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믿을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애니문 보험과 함께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SMG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광고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실제 환자는 아니며 서울 메디칼 그룹의 모델임을 알려드립니다.

플러튼 지역

#수업개배우는건강

조이스리 가정주치의 건강세미나

요실금 & 오줌소태의 모든 것



세미나소개

센터메디컬그룹의 1호 직영점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 지점**에서 여성 주치의 조이스리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설명해주는 **오줌소태/요실금**에 관한 모든 것!

세미나대상

말 못할 부인과 질환들을 고민하고있는 모든 **여성 시니어**

세미나정보

9월 18일 수요일 10:00am
나들목 비전 교회
(223 E Imperial Hwy #145 Fullerton, CA 92835)

참여 및 문의

전화로 신청 및 문의 주세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714) 519 - 3024

참가비

무료
(다과와 푸짐한 구디백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Center MEDICAL CLINIC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함께하는 기관

KACC한인연합센터



센터메디컬그룹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시니어라면
오케이!

만 64세 이상이라면 **무료**로
참여하셔서 푸짐한 **경품**
받으시고 즐거운 추억 만드세요~!

2024년 센터메디컬그룹배 시니어 탁구대회

2024년 9월 12일 (목) 9am 플러튼 탁구 아카데미
241 E Imperial Hwy #350, Fullerton, CA 92835

신청방법

전화접수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888-847-3098

현장접수

플러튼 탁구아카데미
방문접수 가능

경품

경품이 와르르~

참가상

참가만해도 상품 혜택!
상품 가득한 구디백

1등

생생한 화질을 볼 수 있는
삼성 65" TV

2등

빠른 물살을 타게
마사지건

3등

맛만 해도 향이 날
프리미엄 홍삼

“소비자가 된 교인, 성경적 예배 회복해야”

경건함 대신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변질

미국 클리블랜드 파크사이드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작가인 알리스터 베그(Alistair Begg)가 현대 교인들이 경건함 대신 소비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에 온다고 경고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연례 '싱! 콘퍼런스'(Sing! Conference)에서 베그 목사는 강단이 한때 영적 권위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일상적이고 소비자 중심의 예배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72세의 스코틀랜드 출신인 그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선호도를 넘어, 교회가 성경과 교감하는 방식이 변했다고 지적했다.

베그는 어린 시절 예배 시작 전, 준비위원이 강대상으로 성경을 가져오던 모습에 경이감을 느꼈다고 회상하며 “전통적으로 강대상은 중앙에 위치하고 시각적으로 두드러졌다. 이는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상기시키기 위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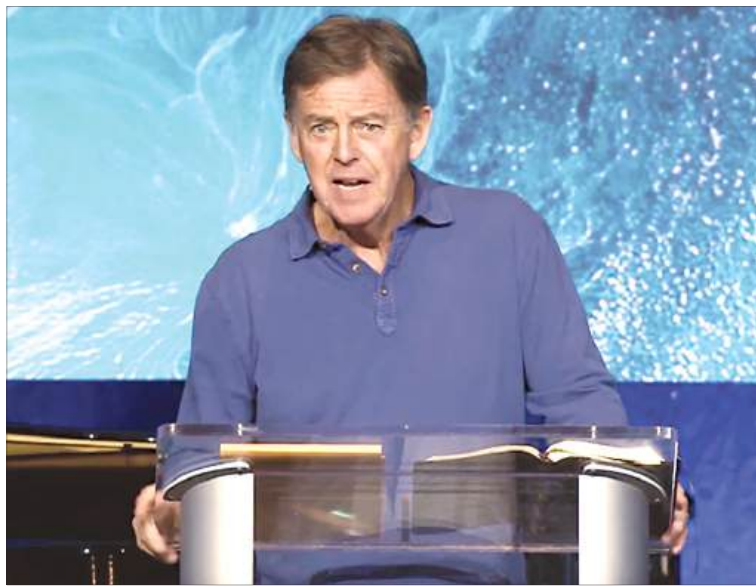
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러한 중심성이 사라지고, 예배 공간을 덜 공식적이고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가치 있는 시도일 수 있지만 불행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고 했다.

그는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할 때 ‘이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분명한 이해 대신, 커피를 들고 ‘오늘 뭔가 좋은 것을 가져 왔는지 보자’고 생각하며 오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성경 해석은 영감을 주는 강연에, 그 후에는 치료적 노력에 자리를 내주고 있다”라며 “미국이 성경 문맹의 심각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 성경은 부적이나 구석에서 숨배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매일의 지식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원천이다. 성경 없이는 인생을 계속 살아갈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베그는 설교가 본문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 “성경과의 깊이 있는 교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파크사이드교회 담임목사인 알리스터 베그. ©Sing! 2024

제”가 되기를 촉구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붕괴와 강단에서 표현되는 것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다”며 “목회자의 성경 연구 사역은 단순히 내용을 설명하고, 빈칸을 채우는 정도의 몇 가지 지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목회자와 설교자, 그리고 교인들은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

of the Will)을 언급하며,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누구도 성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비록 우리가 성경을 인용하거나 토론하거나 암기하더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경을 제대로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현대 예배가 공허하게 느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성경과의 교감이 끊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된 예배를 위해서는 영적인 삶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그는 히브리서를 인용하며 “예수님이 예배의 지도자이시며, 그분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신다”며 “성경 해석을 풍부한 찬양에 희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연례 '싱! 콘퍼런스'는 기독교 음악가인 키스와 크리스틴 게티가 주최하며, 교회 예배에서 신학적 이해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올해는 “성경의 노래(The Songs of the Bible)”를 주제로 9월 4일부터 6일까지 진행되었다.

김유진 기자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가을 말씀 부흥회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가을을 맞아 김진영 선교사(실크웨이브 미션 대표), 노진준 목사(설교 코칭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 담임)를 초청해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는 주제로 말씀 부흥회를 주최한다.

10월 6일(주일)에는 김진영 선교사가 1, 2, 3부 예배 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 ‘포기하지 않는 열정’,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며, 10월 13일(주일)에는 노진준 목사가 1, 2, 3부 예배에서 ‘기도의 열망’, ‘함께 기도하라’, ‘구하라!’는 주제로 설교하며, 10월 20일(주일)에는 권준 목사가 1, 2, 3부 예배 때 ‘자격 없는 자의 하나님’, ‘Restart, 다시 시작하면 돼!’, ‘거룩한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예정이다.

또한 이 교회는 11월 17일(주일) 찬양제를, 11월 24일(주일) T.S.N. (간증 나눔의 밤, 동산별 전도 잔치), 12월 22일(주일) ‘성탄 축하의 밤’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민선 기자

2024년 가을 말씀 부흥회
“거룩한 열심을 품으라”

말씀으로의 초대 1
일시: 10월 6일 주일예배
강사: 김진영 선교사(실크웨이브미션 대표)
1부 예배: 포기하지 않는 사람(마가복음 1:9-11)
2부 예배: 포기하지 않는 열정(마가복음 1:14-15)
3부 예배: 포기할 수 없는 사명(마가복음 1:16-20)

말씀으로의 초대 2
일시: 10월 13일 주일예배
강사: 노진준 목사(설교 코칭 미니스트리 공동대표)
1부 예배: 기도의 열망(다니엘 6:10-16)
2부 예배: 함께 기도하라(마가복음 5:13-16)
3부 예배: 구하라!(마태복음 7:7-11)

말씀으로의 초대 3
일시: 10월 20일 주일예배
강사: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담임)
1부 예배: 자격 없는 자의 하나님 나라(마태복음 20:1-16)
2부 예배: Restart: 다시 시작하면 돼!(요한복음 21:15-17)
3부 예배: 거룩한 꿈을 향한 위대한 도전(욥기 1:1-6)

동부장로교회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

LA동부장로교회(담임 김정오 목사)는 9월 15일(주일) 오후 4시 대 예배실에서 장로 취임 및 안수집사·권사 임직예배를 드린다.

이번 예배에서 이규장 장로가 취임하고, 강태봉, 김해진이 안수집사에, 강종례, 고복순, 김안자, 김주은, 김치욱, 김해숙, 노미옥, 박소영, 윤경애, 이명희, 최임선, 최지영, 황정희가 권사로 임직 받는다.

지난해 9월 24일 창립 50주년 기념예배를 드린 LA동부장로교회는

1973년 9월 30일 이용규 목사와 교인들이 첫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창립되었으며, 에스겔 43:1, 2, 47:1 말씀을 바탕으로 교회를 정했다. 이용규 목사는 이번 교우들의 삶을 여러 방면에서 섬겼으며, 2016년 84세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겼다. 김정오 목사는 2017년 2대 담임목사로 위임예배를 드리고 개혁주의 신앙을 바탕으로, 성경만을 절대적 권위로 삼고 목회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주소: 4270 W. 6th St. LA, CA 90020

월드미션대, 영성 수련회 13일

월드미션대학은 박영선 목사(남포교회 원로목사)를 강사로 초청해 가을학기 영성 수련회를 연다. 수련회는 9월 13일(금) 오후 5시부터 8시 30분까지 온라인 줌(213 388 1000)으로 진행되

가을학기 영성수련회
일시: 09.13.2024 (FR) 5PM - 8:30PM
zoom 2133881000
"기독교란 무엇인가 (엡1:3-5)"
강사: 박영선 목사

며, 주제는 “기독교란 무엇인가”(엡 1:3-5)이다. 주디 한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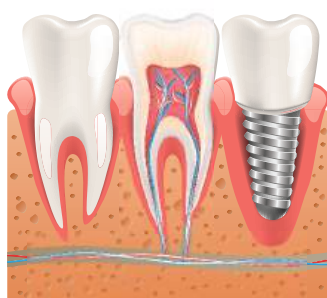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바른 선택을 원하신다면 올림픽치과로 오세요. 임플란트, 신경치료, 크라운, 보철, 틀니 등 모든 일반치과의 진료를 최신장비를 갖추고 친절하고 꼼꼼하게 진료하는 에스더 이원장님께 안심하고 치료받으세요. 3D 디지털 임플란트 도입해 운영, 첨단 장비와 기술력으로 빠르게 치료와 회복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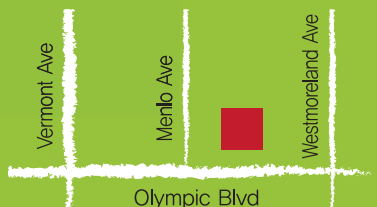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에스더 이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공식 타이틀 후원사



센터메디컬그룹 창립 10주년



미스트롯3

세상을 꺾고 뒤집어라

GALA/DINNER SHOW

10월 12일 <토> 6 PM

INTERCONTINENTAL
LOS ANGELES DOWNTOWN
WILSHIRE GRAND BALLROOM II
900 WILSHIRE BLVD, LA, CA 90017

RESERVATION ONLY | \$500부터

LIVE CONCERT

10월 13일 <일> 6 PM

SHRINE
SHRINE AUDITORIUM
665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50 ~ \$350



\$350 | 300 | 275 | 250 | 225 | 200 | 180 | 175 | 150
125 | 120 | 115 | 110 | 100 | 90 | 85 | 75 | 70 | 65 | 50

Ticket Price

특별 협찬



MANHEE KOJU FOUNDATION

서울스트리트



A&E재단 3대 은행



ASIANA AIRLINES



radiokorea



연세메디칼클리닉



hansol INSURANCE



공연 판매처 티켓 문의. (213)459-6800 | (213)459-6802 (월~금, 9AM~6PM)

상호	전화번호	주소	상호	전화번호	주소
삼호관광 LA	(213) 427-5500	2580 W. Olympic Blvd, Unit #2, LA, CA 90006	한우리여행사	(213) 388-4141	1001 S. Vermont Ave, LA, CA 90006
한남제인 LA	(213) 382-2922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한남제인 델라모	(424) 955-1234	21305 Hawthorne Blvd, Torrance, CA 90503
헤이리 카페	(213) 389-6138	755 S. Hobart Blvd, LA, CA 90005	GC Natural 부에나파크	(714) 870-7582	6081 Dale St. #B, Buena Park, CA 90621
천중산삼 LA 월서	(213) 388-1234	3906 Wilshire Blvd, LA, CA 90010	천중산삼 부에나파크	(562) 902-1235	5300 Beach Blvd, #118, Buena Park, CA 90621
코리아타운 시니어센터	(213) 387-7733	965 Normandie Ave, STE 200, LA, CA 90006	Jamie's Beauty 가든그로브(아리랑마켓)	(714) 356-7773	9580 Garden Grove Blvd, #303, Garden Grove, CA 92844
태양여행사	(213) 252-9700	3030 W. Olympic Blvd, #103, LA, CA 90006	도르가서점 가든그로브	(714) 636-7430	9112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시니어 전문 케어 메디컬 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30년 뒤 기독교인 수 270만 명 감소 예상

목데연·한교총 추계 분석 보고서 발표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는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과 협력해 주요 교단의 과거 20년치 교세 통계 자료를 확보하고, 2050년까지 한국 기독교 인구 수를 예측하는 '한국 기독교 교세 추계' 분석을 조사전문기관인 마크 로밀렘브레인과 연세대학교 통계 데이터사이언스학과에게 의뢰해 10일 발표했다.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된다. 기독교인 인구 수 기준으로 보면, 2025년과 2026년 사이, 2032년과 2033년 사이 0.4~0.5% 비율로 감소하다가 2038년부터는 감소율이 1%대로, 2043년 2%대, 2047년에 접어들면 3%대까지 더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기독교인 수의 하락폭은 대략 2038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30년 후, 60세 이상 고령 기독교인 43.9%까지 증가

2024년 기준 연령대별 기독교인 비중을 보면 4050세대(30.4%)와 60대 이상 노년층(28.9%)이 비슷한 수준인데 이후 기독교인 비중은 어떤 변화를 보일까? 2024년 이후, 연령별로 비교 분석을 하면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한편 60세 이상 기독교

인의 비중은 2050년 43.9%까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어린이/청소년 교인 수, 2050년은 현재(2024년)의 약 60%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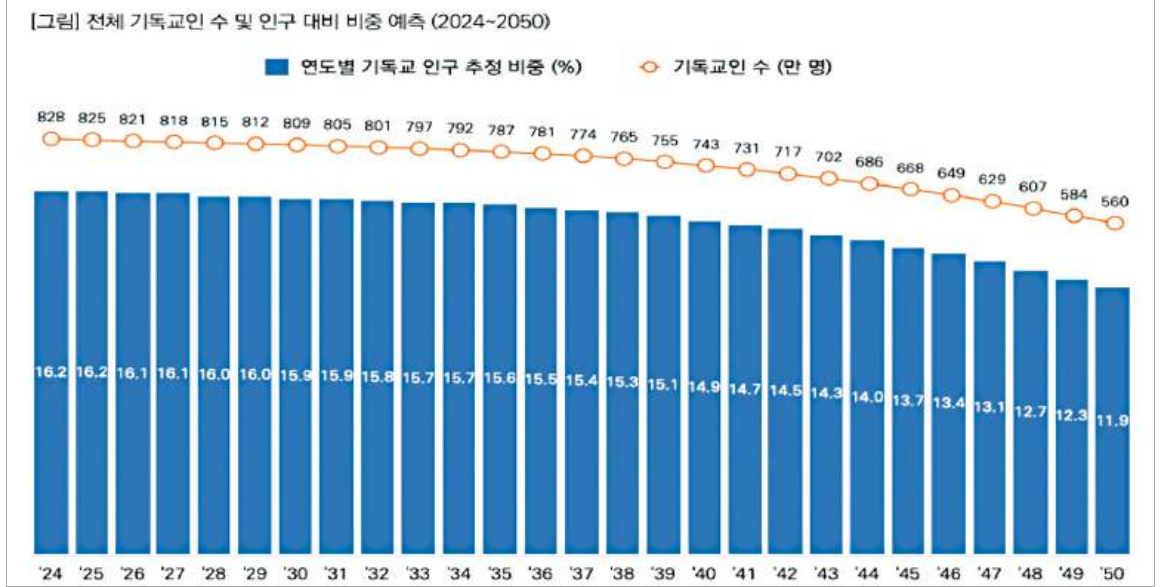
전체 기독교인 대비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14.7%에서 2034년 13.3%, 2050년에는 12.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0~9세 감소폭(0.4%p)보다 10~19세 감소폭(1.8%p)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어린이/청소년 기독교인 수는 2024년 122만 명에서 2050년에는 현 수준의 57%인 7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2030세대, 전 세대 중 가장 급격한 감소 예상

2030은 기독교인 비중 등 수치상으로 보면 가장 불안한 세대다. 2024년 26.0%였던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50년 16.7%로 9.3%p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203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24년 215만 명에서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30년 이후는 200만 명 아래로 떨어지고, 2050년이면 94만 명으로 2024년의 44%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4050세대 기독교인, 2050년이면 현재보다 약 100만 명 감소 예상

4050세대 기독교인 비중은 2024년 30.4%에서 2050년 26.9%로 하락이 예측되는 가운데 2050년까지 2030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하락이 예상되며, 50대(1.4%p)



2024년 16.2%인 기독교인 비율은 이후 지속적으로 떨어져 2050년엔 11.9%로 예상했다. 기독교인 수의 하락폭은 대략 2038년을 기점으로 더욱 가파를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대비 40대(2.1%p)의 감소율이 다소 클 것으로 예측했다. 2024년 현재 252만 명인 4050세대 기독교인 수는 2050년 150만 명으로 40%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70세 이상 기독교인 증가 예상

60세 이상 노년층 기독교인 비중의 경우 2024년 28.9%에서 10년 뒤(2034년) 33.2%, 2044년 40.6%로 꾸준히 증가해 2050년 43.9%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세부 연령대별로 보면 60대 기독교인 비중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반해 7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24년 13.0%에서 2050년 28.9%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전 연령대 중 유일한 증가 예상 그룹이었다. 송경호 기자

연도	어린이/청소년	2030세대	4050세대	60세 이상	전체 기독교인 수(만 명)
2024	14.7	26.0	30.4	28.9	828
2025	14.8	25.8	30.8	28.6	825
2026	14.8	25.6	30.9	28.7	821
2027	14.7	25.4	31.0	28.9	818
2028	14.6	25.2	31.0	29.2	815
2029	14.4	25.0	30.9	29.7	812
2030	14.2	24.8	30.8	30.3	809
2031	14.0	24.5	30.6	30.9	805
2032	13.8	24.2	30.4	31.7	801
2033	13.5	23.9	30.1	32.4	797
2034	13.3	23.6	29.9	33.2	792
2035	13.1	23.2	29.7	34.0	787
2036	12.9	22.8	29.6	34.8	781
2037	12.7	22.4	29.4	35.5	774
2038	12.5	21.9	29.3	36.2	765
2039	12.4	21.5	29.2	37.0	755
2040	12.3	21.0	29.1	37.7	743
2041	12.2	20.5	28.9	38.4	731
2042	12.2	20.0	28.7	39.2	717
2043	12.2	19.5	28.4	39.9	702
2044	12.2	19.0	28.2	40.6	686
2045	12.2	18.6	27.9	41.3	668
2046	12.3	18.2	27.7	41.9	649
2047	12.3	17.8	27.5	42.4	629
2048	12.4	17.4	27.3	42.9	607
2049	12.5	17.0	27.1	43.4	584
2050	12.5	16.7	26.9	43.9	560

2030세대 기독교인 비중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60세 이상 기독교인의 비중은 2050년 43.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CMF선교원 9월 정기 모임

9월 8일~10월 13일 제124기 결혼교실 실시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이 지난 9월 7일(토) 오후 5시 CMF선교원 회관에서 9월 정기 모임 갖고 예배를 드리고 친교를 나눴다.

이날 모임은 김철민 장로의 사회 아래 양병식 목사(CMF회원)가 대표로 기도하고 방익수 목사(사방교회)가 설교했다.

방 목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베드로전서 1장 13절-16절)를 제목으로 설교를 했으며 참석자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 이어 채형병 목사(CMF선교원)가 합심기도를 이끌었다.

한편, CMF선교원은 9월 8일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주간 '제124기 CMF결혼교실'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사에 대한 문의는 (714)493-0191로 하면 된다.

가정사역 단체인 CMF 선교원

김민선 기자



CMF선교원 9월 정기예배. © CMF선교원

늘푸른선교교회 창립 22주년 감사예배

애나하임 소재 늘푸른선교교회(Mission Community Church, 안창훈 목사)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9월 29일(주일) 창립 감사예배를 드린다.

이 교회는 창립 22주년 특별금요기도회를 9월 6일(금)부터 9월 27일(금)까지 진행한다.

부산대 물리학과, 지능기공학과 대학원을 졸업하고 과학자의

길을 준비하다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은 안창훈 목사는 장로회신학대학원, Azusa Pacific University에서 수학했으며, Talbot 신학교에서 기독교교육학 박사과정을 밟던 중 2015년 늘푸른선교교회 담임목사로 취임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다. 조셉 리 기자 주소: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문의: (714) 808-9191

“혹사 당하는 눈!”

너무 많은 눈 영양제 과연 어떤 것이 좋을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 : **연령, 안구상태(안구건조증), 생활**
(눈 질환이 있는 경우는 의사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합니다)



01
눈 건강 루테인지아잔틴
\$17.90 ▶ \$14.90

50대 이상 : 노화로 인한 눈 건강문제(황반변성)를 지키기 위해서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함유된 영양제를 추천합니다. 루테인은 자외선을 차단해 망막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02
눈 건강 루테인 밀크씨슬
\$17.90 ▶ \$14.90

40~50대 : 눈 보호와 함께 과한 업무로 누적된 '긴' 건강도 신경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눈에 좋은 루테인과 간에 좋은 밀크씨슬이 함유된 '루테인 밀크씨슬'을 추천합니다.



03
눈 건강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
\$18.90 ▶ \$15.90

20~30대 직장인: 직장업무에서 컴퓨터, 휴대폰 등의 사용량이 많고 눈이 혹사되어 피곤한데도 눈이 잘 수 없는 상황에 놓은 분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A, 비타민E가 함유된 영양제가 좋습니다. 특히, 안구건조증이 있는 분들은 '루테인 알티지 오메가3'를 추천합니다.



J1 Mارت
Healthy Life

판매처
PRO-Z USA, Inc
T.(213)278-3250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김정훈 담임목사
대홍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전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투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인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박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룩하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섬김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주희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LA 동부 지역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막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니카라과, 미국인 정치범 135명 석방... 기독교단체 사역자 13명 포함



니카라과 정치범수용소에서 석방된 마운틴게이트웨이 사역자들. ©국제 ADF

5일(이하 현지시간) 니카라과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석방된 미국인 135명 가운데, 올해 초 수감됐던 텍사스 소재 마운틴게이트웨이(Mountain Gateway) 소속 사역자 13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국가 안보 보좌관인 제이크 설리번(Jake Sullivan)은 이날 성명을 내고 "누구도 자유로운 표현, 결사, 종교의 실천이라는 기본권을 평화롭게 행사했다는 이유 때문에 수감돼선 안 된다"며 관련 소식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대규모 전도 캠페인 이후 체포된 니카라과 목사들과 마운틴게이트웨이 회원들은 올해 3월 자금 세탁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2~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총 약 10억 달러(약 1조 3,284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그들을 대리한 두 명의 변호사도 유죄 판결을 받고 투옥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마운틴게이트웨이의 설립자이자 사장인 존 브리튼 한콕(Jon Britton Hancock)은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어 온 날이다. 국회의 원, 국무부, 국토안보부는 부당하게 투옥된 이들의 석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전했다. NYT는 "한콕 역시 기소됐으나 체포되지는 않았고, 엘라베마주 공화당 의원인 로버트 에이더홀트(Robert Aderholt)와 다른 의원들의 지지를 받으며 석방 운동을 펼쳐 왔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수감자 중에는 출산 직후 체포된, 마운틴게이트웨이 목사이자 관리자인 마리셀라 메히아(Marisela Mejía·34)도 있었다.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월너 O. 블랜던(Walner O. Blandón) 마운틴게이트웨이 수석목사는 각각 징역 15년과 8천만 달러(약 1,052억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메히아와 블랜던 목사의 두 자녀는 모두 미국에서 태어났으며, 니카라과의 친척 집에 함께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곧 과테말라에 있는 부모와 합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설리번은 또한 다니엘 오르테가(Daniel Ortega) 니카라과 대통령과 그의 부인인 로사리오 무릴로(Rosario Murillo) 부통령의 권위주의 통치에 위협이 된다는 혐의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학생 등도 석방됐다고 덧붙였다.

설리번은 "미국은 니카라과 정부에 '단순히 기본적인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시민을 자의적으로 체포하고 구금하는 것'을 즉시 중단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 니카라과 시민을 받아들이는데 호의적으로 동인한 과테말라 리더십과 관대함을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석방된 이들이 과테말라에 도착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삶을 재건할 기회를 제공받을 것"이라고 했다. 니카라과는 2018년 4월 가톨릭 지도자들이 "은퇴자들의 사회 보장 삭감 시위에 대한 정부의 치명적 탄압"을 비판한 이후, 사제와 수녀들을 체포하고 투옥 및 추방하기 시작했다.

니카라과 공무원들은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가톨릭교회를 상대로 1,200건의 조처를 해, 수십 명의 사제와 수녀를 추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8년에서 30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대체로 오르테가 정권의 인권 침해에 대한 비판을 삼가왔으나, 정부는 이들을 가톨릭교회보다 더 조용하고 점진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했다. 김유진 기자

美 유명 탈성전환자 "나와 같은 실수 범하지 말길"



2023년 7월 27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주최한 청문회에서 탈트랜스젠더 소녀인 클로이 콜이 증언했다. ©The Daily Signal Youtube

미국의 유명 탈성전환자가 성전환 수술을 경험한 이들 중 다수는 후회를 한다며 "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CBN뉴스에 따르면, 탈트랜스젠더 소녀로 알려진 클로이 콜(Chloe Cole·18)은 자신의 성을 회복한 후,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에 반대하며 수술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운동에 앞장서고 있다. 소셜미디어와 카툰의 영향으로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젊은이, 12세부터 수년간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받고 결국 15세에 남성이 되기 위한 유방 절제술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성전환 수술이 내게 지울 수 없는 신체적·감정적 상처를 남겼다"며 의료 전문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콜은 "의사가 '성별 불쾌감'으로 인한 고통은 성전환으로 해결될 것'이고, '의학적 수술을 받지 않으면 자살하게 될 것'이라며 부모님을 조종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성전환의 각 단계를 거친 후 초기에만 안도감을 느꼈을 뿐, 고통은 더욱 악화됐다. 유방 절제술을 받은 후 오히려 자살 충동과 정신 건강 상태의 악화를 경험했다"고 했다. 그녀는 "12살 아이들에게 '잘못 태어났다'고, 자신의 몸을 거부하고 자신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아이들에게 어떤 종류의 사춘기를 겪을 지 선택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현재 콜은 미성년자 성전환 치료를 바라보는 시각을 변화시키는 데 힘쓰고 있다. 엘라베마, 애리조나,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미시시피, 사우스다코다, 테네시, 유타주 등 미국의 주 절반 이상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춘기 억제제 처방 및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크리스천 비즈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23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데레스가 되고 싶은 분
-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아시아미용선수권 수능
·아시아미용기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베르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 ✓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 ✓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 (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찜닭, 오뎅, 수박,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 기억력 개선
- 피로 회복
- 혈액순환 개선
- 면역력 강화
- 항산화 작용

5 **비타민 D3 5,000 IU**
120 캡슐을 합술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D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 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캡슐을 합술 \$11.99
당신의 건강과 부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 C와 갈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9회 정기 가을노회 개최

가을 정기회
9월 16일(월) 오후 6시
남가주 하나교회서 개최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LA 중앙노회 제9회 정기 노회가 '믿음의 양날개로 비상하는 노회'(사 40:31)를 주제로 9월 16일(월) 오후 6시, 남가주 하나교회(담임 노명구 목사)에서 개최된다.

노회측은 "노회원들의 참여를 바라며 건전한 교단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역의 지킴이 역할을 감당하고자 원하시는 이들은 노회 가입을 위해 함께 내빈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노회는 1부 예배로 신관호 목사(생명의 빛 교회 담임)의 'WPC 목회자여 새 힘을 받으라'(사 40:31) 설교와 회계 양한석 목사(생명문 선교교

회 담임)의 성찬 예식, 김정호 목사(조이풀교회 담임)의 축도로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며, 2부로 회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WPC 세계예수교장로회 산하 페트라대학교(Petra University)는 신학학사, 목회학 석사학사를 모집하고 있다. 유학비자가 가능하며 문의는 213-210-3877, www.petrauniversity.org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늘노래 합창단 시각 장애인 후원 연주회

시각 장애인을 돕기 위한, 가주 늘노래 합창단(단장 김용중, 이사장 공영옥)의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10월 13일(일) 오후 5시 로덴장로교회(담임 박일룡 목사)에서 개최된다.

늘노래 합창단은 비영리 단체로서 'With You'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난 해에는 '말할 장애인 돕기' 음악회를, 올해는 '시각 장애인 돕기'라는 부제로 연주한다. 창단된 지

3년이지만 재향군인회의 '육이오 음악회' '815 광복 축하 음악회' 등 많은 연주를 했다.

이번 연주회는 '가을엔 아름다운 합창으로'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김용중 단장은 "이민 와서 나이 들어 노래 부르는 일이 별로 없는데 기쁨과 희망을 주는 늘노래 합창단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요 기회이다. 곡조 있는 기도인 찬양을 통하여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나누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전성진 지휘자는 아메리칸 컨서바토리 음악대학 교수로 재직하였고 찬송교실에서 (나도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르고 싶다, 저자) 찬송을 은혜스럽게 부를 수 있게 방법, 표현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특히 소프라노 오혜령씨(렘벨 대학교 성악과 졸업)를 초빙하여 '주나의 이름 부를 때' 외 2곡을 공연한다. 공연에 대한 문의는 단장 김용중(630)707-5857, 이사장 공영옥(562)292-9955, 총무 김선철(818)625-5688로 하면 된다.

한편, 가주 늘노래 합창단은 매 주일 아침에 밥과 불고기, 빵, 커피를 홀리스들에게 사랑으로 나누고 있다. 김민선 기자

가주 늘노래 합창단
두 번째 정기 연주회
가을엔 아름다운 합창으로...

1부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며
2부 삶의 여정 속에서
3부 "사도행전 1장 8절"

2024년 10월 13일(주일) 오후 5시
로덴 장로 교회 (1759 W. Broadway, Anaheim, CA 92804)

지휘 | 전성진 반주 | 신혜영 독창 | Helen Oh

가주 늘노래 합창단 두 번째 정기 연주회가 10월 13일(주일) 오후 5시 로덴장로교회에서 개최된다. 수익금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전달된다. © 늘노래 합창단

재소자 선교 위한 음악회 열린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9월 29일(주일) 저녁 5시 오렌지 카운티 브레아시에 위치한 나침반 교회(담임 민경엽 목사, 주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에서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를 개최한다. 30년 전 1994년 김석기 목사가 창립한 오네시모 선교회는 캘리포니아 재소자들과 그 가족을 위해 사역해 왔다.

오네시모 선교회는 부에나파시에 위치해(주소: 7751 Stanton Ave. Buena Park) 있으며 ▲가주 연방 정부 교도소 다인종 대상 예배사역(멕시코 샌 루이스 리오 콜로라도 교도소 매 주 화,금요일 예배) ▲가주 전역 소재한 교도소에 형제, 자매를 개별 방문해 상담과 복음 전도사역(매주 금요일 OC 감옥 방문) ▲소식지를 분기별 제작 발행해서 감옥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또한, 2011년 '오네시모 바이블 칼리지'를 설립해 재소자들로 성경적으로 양육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에는 조이어스 어린이 콰이어, 나침반교회 성가대, 에이레네 중창단, 코로나 뉴송교회 성가대, 바리톤 류정상, 테너 오위영, 틴 챌렌지 오렌지 콰이어(Teen

Challenge Orange Choir), 바이올린 Victoria Chun, 클라리넷 Lydia Kang, 첼로 Isacc Chun, 색소폰 주훈이 출연한다.

모든 수익은 감옥선교회 활동 및 재소자 지원에 쓰여진다. 김민선 기자

사역, 및 후원 문의: 714-739-9100,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

가장 힘든 자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29
2024 SEPTEMBER
5:00 P.M.

나침반교회 NACHIMBAN CHURCH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제21회 오네시모 선교회 후원음악회. © 오네시모 선교회

남가주사랑의교회 일일 자녀양육특강

남가주사랑의교회(노창수 목사)가 9월14일(토) 오전 10시 이영숙 박사 초청 일일 자녀양육특강을 사랑채플에서 개최한다.

주제는 "세상을 이기는 힘: 경청"이며 회비는 \$10이며, 차일드 케어가 제공된다.

또한, 9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주간 매 주 수요일 오전 9:45~11:30에 라브리 카페에서 자녀양육 세미나를 진행한다. 강사는 권석희 전도사이며, 등록은 조성은 권사(949-285-4864)에게 문자로 하면 된다. 주디 한 기자

육 특강



진유철 칼럼

버티고(vertigo) 현상



진 유 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전투기가 종종 추락하는 사고가 있는데, 그 이유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로 버티고(vertigo)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조종사들이 깜깜한 밤이나 구름을 지날 때, 아니면 강한 햇빛과 바다의 색깔이 구분 안 될 때 비행기가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정상으로 날아가는지 뒤집어져서 날아가는지 순간 혼동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전투기에서는 하늘이 바다 같고 바다가 하

늘처럼 보이기도 하고, 회전할 때 속도를 높이면 상승하는 것 같고 속도를 낮추면 하강하는 것처럼 느끼는 등 많은 착각이 일어납니다. 특히 해상 비행은 육상 비행과는 달리 항공기의 위치를 참고할 수 있는 지형지물 등의 참조점이 없는데다 야간 비행 시는 밤하늘의 별빛과 해상의 선박 불빛이 동일하게 보이는 비행착각이 더 발생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종종 인체평형기관이 제대로 인지를 못하는 순간 본인의 느낌을 따라 조종을 하게 되면 대형사고가 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내 느낌에 의존하지 않고 계기판을 믿고 비행할 수 있도록 착실하고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자동차운전을 하면서 모르는 길이나 복잡한 길을 갈 때도 나의 느낌과 표지판의 방향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무엇을 따라가야 할까요? 당연히 내 느낌

이 아니라 표지판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숨 가쁘도록 빠르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짙은 구름 속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나워져 갑니다. 어디가 위로 가는 것인지 아래로 가는 것인지 분별이 어려울 정도로 미혹의 정보들이 넘쳐나고 각자 자기주장들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이든 사업이든 장래이든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에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비행과 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인생의 계기판과 표지판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느낌이나 번지르르한 말만 일삼는 지도자들이나 계속 변하는 세상 지식이나 책임지지 못할 권력이나 물질이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월의 흐름을 따라 변하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눈으로 인지하든 못하든 간에, 어제의 산과 오늘의 산야가 다르고, 어제의 태양이

오늘의 태양이 아니고, 어제의 달빛이 오늘의 달빛과 다릅니다. 당연히 어제의 내 몸도 오늘의 내 몸과 다릅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낡아지고 사라지지만 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시며 영생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계기판과 표지판이 되어 주십니다.

금번에 제12회 성경암송대회를 통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세가 될수록 빈번히 생길 수밖에 없는 영적 버티고(vertigo)현상을 이겨내고 천지는 없어져도 일정일확도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계기판과 표지판으로 삼아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백종근 칼럼

‘하위럼 선교사 조선 선교행전’ (6)

백종근 목사의 저서 『예수와 함께 조선을 걷다』는 1896년 남장로교 선교사로 조선에 파송되어 전주와 군산 그리고 목포를 비롯한 호남지역에서 평생을 보내며 이 지역의 유무형의 선교 인프라를 깔아 호남선교의 토대를 마련한 하위럼 선교사의 선교일대기를 담은 책이다. 그 내용을 수회에 나누어 본지에 실는다.

데이비스와 결혼

군산에 부임한 데이비스와 전주에 부임한 하위럼이 만나 결혼하게 된 러브스토리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 소개하기로 한다.

남장로교 내한선교사로 조선 땅을 제일 먼저 밟은 데이비스는 1862년 버지니아 아빙돈에서 태어났는데 그녀가 3살 되던 해 남북전쟁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를 잃고 신앙심이 깊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장로교 가정의 경건한 분위기가 자란 데이비스는 어려서부터 오지의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했는데 그녀의 나이 29세에 조선 선교의 문이 열리자 데이비스는 조선 선교사를 지원하게 된다. 당시 조선은 오지 선교지 가운데 하나였다.

그녀가 조선에 도착한 이듬해인 1893년부터 1896년 11월 군산에 부임하기 전까지 약 4년 동안 데이비스는 레이놀즈와 함께 인성부채를 이끌며 어린이 사역에 매진

하고 있었다. 1896년 11월 선교부 연례회의에서 자신의 임지가 군산으로 정해지자 그녀는 곧바로 군산으로 내려오게 된다.

한편 유진 벨 선교사와 함께 남도 탐사를 마친 하위럼 역시 전주로 그의 사역지가 결정되면서 1896년 11월 하순 전주에 부임했으나 짐도 풀기 전에 전진 선교사로부터 군산 스테이션에 내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선교 준비 관계로 드루와 함께 서울에 올라가야 할 일이 생겼다는 거였다.

남자 선교사들이 자리를 비우는 동안 스테이션의 관리는 물론 2살 짜리와 생후 6개월 된 갓난애가 딸린 메리를 포함한 여선교사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남자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그러나 이제 막 전주에 부임한 하위럼 역시 진료소를 열기 위한 준비로 바빴던 터라, 내키지 않는 일이었지만 자신 말고는 딱히 내려갈 사람이 없었다.

전진의 다급한 요청으로 군산에 내려온 하위럼은 자연스럽게 데이비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물론 두 사람은 이미 남장로교 서소문 선교부에서 이미 만난 일이 있었지만, 서로 간에 동료 선교사로만 여겼지,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눈이 많이 내려 수덕산에 있던 선교부에

서 시내까지 내려갈 수도 없을 만치 통행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눈으로 갇힌 선교부에서의 생활이 조금도 불편하지 않았다. 주일에는 수세자를 포함해 몇몇 교인들이 교회를 찾았으나 하위럼이 예배를 인도했고 주중에 있는 여성 성경공부는 데이비스 양이 맡아 진행했다. 진료소마저 눈으로 갇힌 상태라 찾는 이도 드물어 두 사람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도 좋았다.

두 사람이 군산에서 만나는 동안 짝을 티웠던 연모의 감정을 하위럼은 일기에 남겨 놓았다.

1896년 12월 14일

내가 드루 박사과 전진 목사가 서울에 가서 없는 동안에 데이비스 양에게 드루 부인과 함께 머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여 받아들여졌다

1897년 2월 18일

데이비스 양이 말수가 줄었는데 의심할 것 없이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다.

하위럼이 그해 겨울을 군산에서 보내고 다시 전주로 돌아간 것은 전진과 드루가 서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듬해 초봄이 다 되어 서였다. 하위럼과 데이비스가 전주



리니 풀커슨 데이비스 (Linnie Fulkerson Davis)와 하위럼 (William B. Harrison) 선교사

와 군산으로 서로 몸은 떨어져 있었으나 서로를 향한 연모의 감정은 어떤 장애도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전주-군산 간 신자 수가 생기기 전이라 오가는 일이 쉽지 않았음에도 데이비스와 교제를 이어갔고, 눈 깜짝할 사이에 일 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고 있었다.

1897년 늦가을, 하위럼은 전진의 초대로 군산에 내려갔다. 그는 전주에서 말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에는 데이비스를 만나 청혼을 할 거라고...”

그날 그곳에 모였던 선교사들이 강변으로 오리 사냥을 나갔을 때 하위럼과 데이비스는 일행과 떨어

져 갈대가 우거진 개펄을 뒤로하고 포구를 바라보며 섰다. 간혹 새들이 날아오르고 희뿌연 해무(海霧)가 바다에서 밀려오고 있었다.

호젓한 역세 숲 사잇길을 걷다가 하위럼은 간신히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청혼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혹시 듣지 못했을까 걱정했으나 다행히도 그녀가 들은 듯했다. 그녀가 빨그레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녀의 음성이 미풍에 밀리며 감미로운 화음처럼 들렸다.

그날 밤 속소로 돌아온 두 사람은 그들 앞에 펼쳐질 조선에서의 여정에 대해 밤이 늦도록 이야기했다. 토담 밖에서는 '경경' 개 짖는 소리가 적막을 깨뜨리고 있었다.

2024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달빛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세례 최고의 교수진, 영상 형성 집중 프로그램, 실용적인 사역 대비, 오프라인 수업, 미국 비자 (I-20) 발급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기독교 대학(B.A, M.Div, M.A, M.Ed), 상담학박사, 선교학박사, ESL, TESOL, 평생학습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목회학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1204 W. 163rd St. 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edu
주소 15605 Carmenti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ATS, ACSI, SACS 인증,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8-1000 Fax: (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ACSI, SACS 인증, 특전: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오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어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s.org
학교주소 1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i.aurahelio@gmail.com
전화 1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 (626) 653 9547 EXT.#112/admin.korea@its.edu



잘 계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식사는 잘 드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은
건강하시죠 라는 말

새로워진 **서울메디칼그룹**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인사를 전합니다.

SMG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김인수 칼럼

유대인들은 왜 박해를 받았을까?



김인수 목사
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총장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마태복음 27:24-25)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때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4-25)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차별받고 박해를 받으며 살아 왔습니다. 교회 개혁의 선구자였던 Martin Luther는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해>라는 책에서 “유대인들의 종교 서적을 빼앗고, 그들의 회당을 불태우고, 재산을 몰수하자”고 말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쓴 글 가운데 “재산을 몰수하자”란 말을 유념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 중 하나가 재산 탈취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500년이 지난 후에 같은 독일인 히틀러는 유대인 600만 명 이상을 참혹하게 죽이는 가공할 만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들의 재산도 탈취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박해를 받으며 살아 온 것이 단순히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라는 이유 때문만 일까요? 1095년 교황 우르바노 2세가 프랑스 끌레어몽 공의회에서, 638년 이슬람에 의해 점령된 성도(聖都)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한다는 연설을 한 후 시작된 십자군 운동은 약 200년간 지속되었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동안 무슬림들은 물론 유

대인들도 무수히 죽였는데, 그 명목은 그들의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유대인들이 소유한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십자군 운동 때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유대인들에 대한 박해는 그들의 부(富)를 탐한 자들의 소행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19세기 초(1812) 독일 베를린의 최상위 은행 32개 가운데 17개가 유대인 소유였었고, 일곱 개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의 소유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재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재산을 시기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로부터 한 세기가 지난 후,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인 이유가 단순히 그들 조상들이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고 간 이유만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특이한 복장을 하고, 안식일(토요일)만 되면 모든 일을 쉬고 회당에 모여 여호와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도 눈에 거슬리는 이유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죽인 후에들이라는 명분

으로 유대인을 억압하고 죽이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살육하는 일을 기뻐하실까요? 또 예수님은 원하실까요? 유대인들은 학대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전도 대상입니다. 그들의 조상이 죽인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그를 통해서만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마 28:19)라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제외하라는 뜻이 있을까요? 이제 유대인들을 백안시(白眼視)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성경을 경전으로 여기는 이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수님은 만민의 구속자이심을 일깨워, 구원받는 자들의 회중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주님! 많은 유대인들이 조상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아멘.’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만나겠습니다. 살롱.

신성욱 칼럼

잡초로 볼 것인가, 꽃으로 볼 것인가?



신성욱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나태주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들이 많다. 나 역시 그분의 시를 좋아한다. 이유는 간결한 문장이지만 그 의미는 깊고 산뜻하기 때문이다. 그가 쓴 시 중 가장 유명한 시는 바로 이 내용이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왜 이 시가 나태주 시인의 시들 중 최고의 작품일까? 시인이 이 시를 쓰고 있는 대상은 분명 예쁘지 않은 외모의 소유자일 것이다.

세상에 인물이 좋은 사람보다는 평범한 외모의 사람들이 훨씬 많다. 압도적 다수에 속하는 이들에게 이 시는 위로와 소망을 준다.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미모를 가졌다면 자세히 보거나 오래 볼 필요가 없다.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라면 단번에 사람들의 눈길을 끌리게 한다. 그런데다가 이 시의 압권은 마치

막 세 번째 문장에 있다. “너도 그렇다.” 남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얘기여서 더욱 좋다. 맞다.

사람은 모두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를 좋아한다. 잘생기고 예쁜 외모가 아니라도 자세히 들여다보고 오래 보다 보면 친근하고 정겨운 얼굴이 된다. 이런 시를 읽는데 누가 감동받지 않겠는가? 게다가 그게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니 두 말해서 무엇하랴!

대화할 때나 교제할 때나 설교할 때에는 언제나 독자나 청중의 입장에 서보아야 한다. 그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들의 마음에 힘과 위로를 주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청중예의 적용’이다. 본문 내용으로만 도배된 설교는 청중에게 어필되지 않는다. 전도 대상자들에게 ‘들리는 언어사용’이 중요하고 청중에게도 ‘들리는 설교’가 필요하다. 그게 바로 ‘강해 설교’(Expository Sermon)이다.

나태주 시인의 다음으로 유명한 시는 “봄이 오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이 오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이다. 한 번쯤은 들어본 유명 문장이다. 이와 흡사한 그분의 시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 “봄이 오려고 하면 잡초도 꽃이 되고 베려고 하면 꽃도 잡초다.”

위의 두 문장은 ‘물건의 상태’가 중요한 것

이 아니라, ‘시인이 그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다.

남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판단하면 모든 게 잡초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모두가 꽃으로 보일 것이다. 그렇다. 사람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하다. 급히 한 예화가 떠올랐다.

어느 작은 시골 마을의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신부 곁에서 시종드는 어린아이가 그만 실수를 해서 성찬을 행하는 포도주잔을 앞질러 버렸다. 잔은 깨어지고 포도주는 땅에 쏟아졌다. 신부가 노하여 그 어린아이의 뺨을 때리고는 이렇게 호통을 치며 나무랐다. “다시는 재단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 소리를 들은 아이는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 어린아이는 커서 공산국가 유고슬라비아의 독재자 티토 대통령이 되었다.

어느 날, 큰 도시의 성당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신부는 실수로 포도주잔을 깨뜨려 어쩔 줄 몰라하며 떨고 있는 어린아이를 따뜻한 눈빛으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는 커서 나처럼 신부가 되겠구나.”

그 어린아이는 커서 유명한 폴턴 쉰 대주교가 되었다고 한다.

이 얼마나 대조되는 사례인가!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는데, 두 신부가 내뱉은 말의 내용은 아주 달랐다. 한 신부는 어린아이에게 책망과 저주를 했고, 다른 한 신부는 칭찬과 격려를 했다. 두 신부가 말한 내용에 따라 너무도 대조되는 결과가 두 아이한테 일어났다.

성경에 예수님이 자기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으로 뒤집어 놓으신 사건이 나온다. 삭개오의 사건 말이다. 비록 삭개오처럼 잡초 같은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를 ‘의로운 자’, ‘깨끗한 자’, ‘죄 없는 자’라는 뜻을 가진 ‘삭개오’로 불러주셨다.

그 결과 구두쇠 삭개오에게 있을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가 천국 백성 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의 반을 내어놓았고, 그뿐 아니라 그간 세금 과다부과로 괴롭혀온 사람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다고까지 했다. 전혀 상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잡초 같은 인생을 잡초로 보지 않고 아름다운 꽃으로 보고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다.

나 역시 매사에 사람을 잡초가 아닌 꽃으로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한다.

제2기 성경 필사 후원자 모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딤후3:16~17)

관심과 기도 그리고 물질로 후원해 주실 후원자분들을 찾습니다.

오늘 날 우리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세상 미디어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다. 이에 신약성경 6권(사복음서, 사도행전, 로마서)의 성경 말씀 필사를 통해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길 원합니다. 지난 1기 성경필사 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37명에게 전달했는데 너무도 아름답고 풍성한 영적 승리의 열매가 맺힘을 보았습니다. 이번엔 제2기 성경필사 장학생 33명이 선정되어 2024년 7월 20일부터 필사를 시작하여 12월 말까지 하게 됩니다. 치열한 영적전쟁을 치루며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두가 필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적극적인 관심과 후원을 요청드립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 기도할 때 승리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후원방법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기부금은 세금공제 서류 발급 가능)
CHASE BANK Account #: 611921385
Routing #: 322271627
Zelle: chdailyreporter@gmail.com

성경 필사 본문 (한글, 영문 선택 가능)

마태복음 · 마가복음 · 누가복음 · 요한복음 · 사도행전 · 로마서

성경 필사 후 소감문 작성자 중 선별하여 특별 상품 수여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1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노트북</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2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아이패드</p>	<p style="font-weight: bold; color: #0070C0; margin: 0;">3등</p> <p style="font-size: x-small; margin: 0;">에어팟</p>
---	--	---

* 상품은 광고사진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주최: 기독일보 주관: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3055 Wilshire Blvd, #480 LA, CA 90010 chdailyreporter@gmail.com

제5차 글로벌복음통일미션 컨퍼런스 Global Reunification Korean Mission Conference



KOK 2024



세부안내/등록 www.gideonbrothers.org
www.tmtc.co.kr

주제 “디아스포라 복음통일연합방안”
“다음세대와 복음통일방안모색”



기간 _ 2024. 10월 29일 ~ 11월 1일
장소 _ **방콕한인연합교회**(신상태 담임목사)
63, SOI 44, PHATTANAKARN RD;
SUANLUANG, BKK 10250
(숙박장소_THAYA HOTEL BANGKOK)
대상 _ 담임목사 / 북한선교담당자 / 위 주제 관심자 모두
참가비 _ \$250(30만원)/1인



* 추가음선일정(11월 1일~3일, 탈북루트 치앙라이 외 1곳) _ 등록사이트 참조

주최 | 글로벌복음통일미션네트워크

주관 | TMTC | Total Mission Training Center
(사)글로벌연합선교훈련원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협력 | 방콕한인연합교회

협찬 | BELL INTERNATIONAL ACADEMY

기독교일보

문의 | 대회본부 (425)775-7477 | 개최교회 (093)139-6520 | 기타 (82)10-9294-32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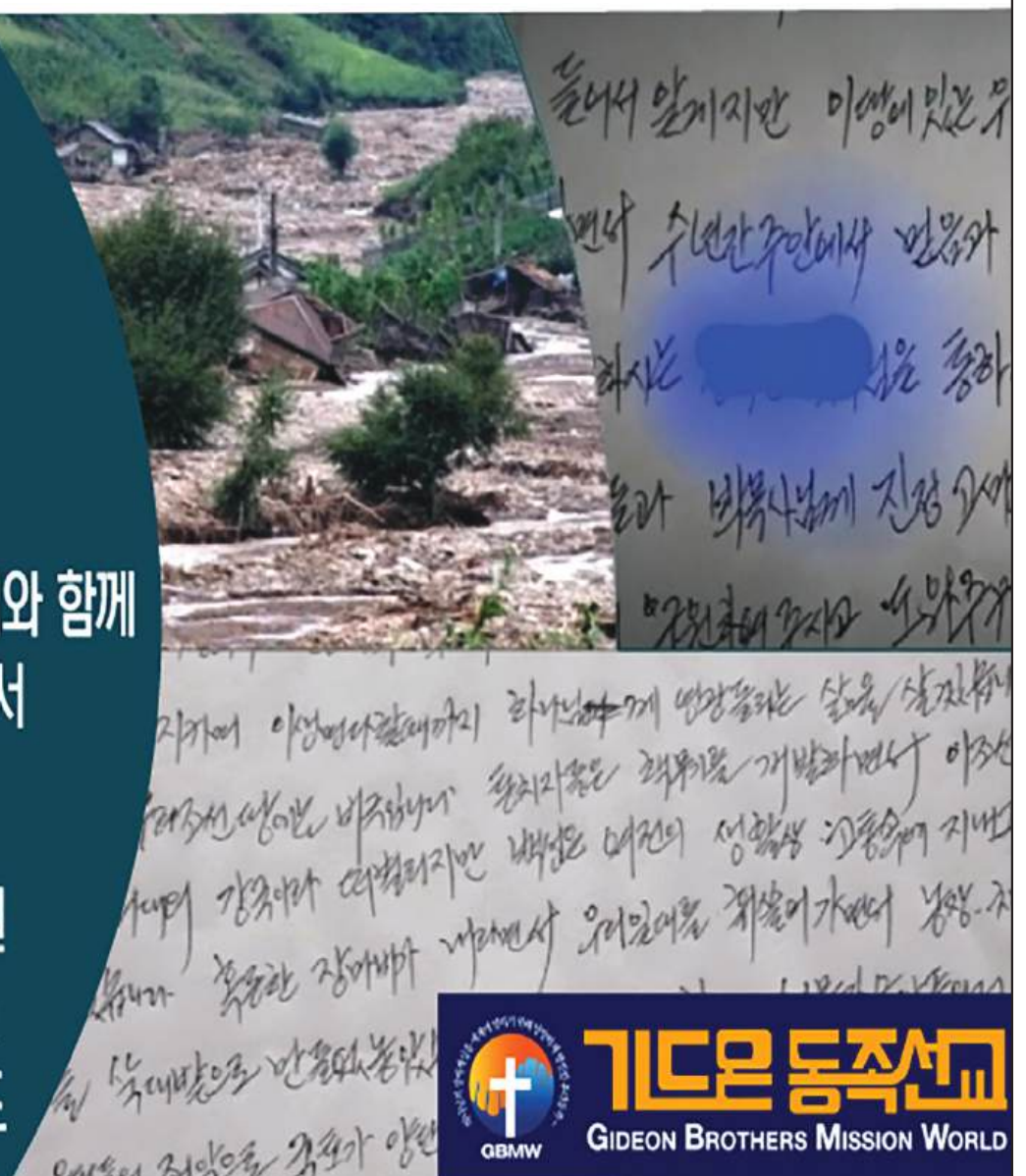
홍수로 고통중인 북녘지하성도들을 도와주세요!

지난 5월 춘궁기 양식을 잘 받았다는 감사편지와 함께
최근 큰 홍수로 농장, 채소밭이 쓸대밭이 되어서
큰 고통중에 도움 요청편지...8월9일

모든 후원헌금은 연말세금
공제의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
(메모: '홍수돕기' 기입)



후원
QR
코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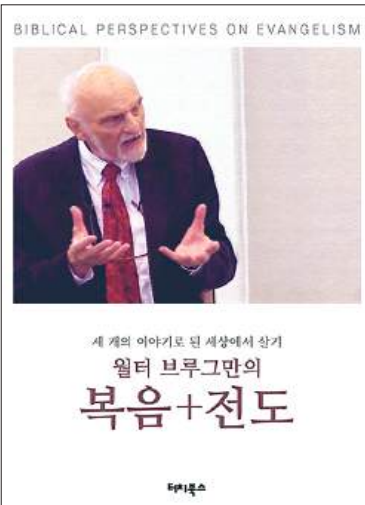
후원방법: PayPal - swp2019 , Venmo - won06danny , Zelle - 4252758072 , 체크오더명: GBMW(아래주소로)

기드온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Tel. 425.775.7477
16825 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gbmwusa@gideonbrothers.org | www.gideonbrothers.org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신선하고 난해한 복음 전유법

구약학자가 전하는 '예언자적 상상력' 과 복음 전도



월터 브루그만의 복음 전도

월터 브루그만 | 이철민 역 | 터치북스 | 218쪽 | 20,000원

우리 시대 예언자 월터 브루그만은 이 책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도를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혼돈과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둘째,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함. 셋째, 선포를 들은 사람들에게 의한 전유라는 세 장면으로 된 드라마

저자에 따르면, 이 드라마의 질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반복해서 재현된다. 재현되는 시점과 상황은 다를 수 있으나 본질적인 메시지와 더불어 표현의 구조는 언제나 동일하게 유지된다. 월터 브루그만은 힘주어 말한다

월터 브루그만은 미국 컬럼비아 신학교에서 교수와 학장으로 25년간 가르친, 잘 알려진 신학자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IVP, 2020),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성서유니온선교회, 2012), <예언자적 상상력(복있는사람, 2009)> 등 많은 저작으로 국내 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졌고, 무엇보다 신학을 전공한 목사에게 특별히 성경 신학이라는 분야에서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친 학자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구약개론>(CLC, 2014) 그리고 <텍스트가 설교하게 하라>에 이어 세 번째로 접한 책이 바로 이번에 터치북스에서 출간한 <월터 브루그만의 복음 전도>이다. '세 개의 이야기로 된 세상에서 살기'라는 부제가 독자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영화의 신선도를 평가하는 로튼 토마토 지수가 있는 것처럼 신약서적의 신선도를(단지 신선도만) 평가하는 지수가 있다면, 이 책은 아마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을 것 같다. 복음과 전도를 이런 측면에서 설명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성경 전체 이야기 구조를 마음껏 활용하며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새롭게 구성하고 전달하는 저자의 논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올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특별히 성경 본문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삶에 일반적인 원칙으로 적용하는 데 익숙한 독자들에게 이 책은 많은 의문을 남긴다.

들어가는 글에서 저자는 성경 본문의 의미를 어떻게 발견하고 활용할 것인지 이렇게 밝힌다: "성경 본문은 '본문 사용자,' 즉 교회와 회당 안의 독자들에게 참여하라고 초대하는 창의적인 현실 모델의 표현이다. 본문은 '거기' 머물러 있기를 거부하고 항상 '현재 시제'와 동시대성을 고수하기 때문에, 본문은 계속 살아서 독자들을 초대한다.

따라서 성경 본문은 단순히(단번의 신적 계시나 저명한 인간 저자

에 의해) 확정되고 고정되지 않는다. 성경 본문은 공동체에서, 특히 예배를 실천할 때, 또한 다른 여러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반복적인 사용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반복적인 사용을 위해 형성되었다(8쪽)."

저자는 볼트만의 비신화화를 반대하면서도 볼트만이 신화로 취급하려 했던 고대의 내러티브가 실제 일어난 역사이고 당시에도 분명한 의미를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의미를 부여하는 '진리'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지는 않는다. 바로 여기서 브루그만이 오늘날 독자에게 복음과 전도를 제시하기 위해 성경 본문을 새로운 맥락에서 사용하고 활용하려는 시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다.

그렇다 해서 브루그만이 성경 본문을 통해 점진적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묵살하거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제하는, 그래서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 복음 모델에 가깝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여기서 말하는 복음 전도는 세상과 이웃, 자신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낳고 그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권한 부여를 낳는 변화된 의식의 활동이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소식은 변화된 삶을 의미한다. 즉 그 소식을 듣고 변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노예를 해방하고, 언약을 맺고, 약속을 지키고, 정의를 명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개인과 공공의 삶을 점차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201쪽)."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문은 때로 거침없이 활용된다.

브루그만이 말한 세 가지 이야기는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종살이로부터의 이야기, 땅의 선물(11쪽)'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유대인에게 민족 대대로 전수된 것처럼, 신앙의 그리스도인에게 또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에게 각각 그들이 처

한 시간과 공간 안에 "수용되고, 전유되고, 재연되기를" 기다리는 소식으로 삼으라고 저자는 권면한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그렇게 만드는 내용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다(9쪽).

저자가 복음 전도 대상으로 삼은 계층은 외부인, 지친 내부인, 어른으로 성장하는 자녀들이다(15쪽). 이스라엘 밖의 외부인(이방인), 언약을 힘겹게 붙들고 있던 내부인, 그 안에서 자라나는 언약 백성의 후손들에게 구약 내러티브가 효과적으로 작용했던 것처럼, 이 책을 통해 복음이 구도자, 성도, 성도의 자녀에게 재구성되고 힘을 발휘하기를 저자는 간절히 바란다.

복음이 실제로 삶의 모든 영역에 유의미한 변화를 일으키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은 심분 공감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 4:17)" 복음,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힘써 외친 복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행 2:38)", 이렇게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이 우리에게 수용되고 전유되고 재연되어야 할 복음이

아닌가? 우리는 브루그만처럼 복음을 설명할 수 있을까? 아니, 설명해야만 할까?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담고 있어 사람의 지혜로 다 알 수 없고 사람의 능력으로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으로 쓰신 성경을 통해 분명하고 충분히 알려 주셨다.

어떤 면에서 브루그만이 강조한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어야 할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영역과 그렇게 하기 위해 단순하고 고집스러운 복음 전도 이상의 노력, 재구성하고 새롭게 수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는 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고전 2:2).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보다 선명하게 제시했다면, 브루그만이 하고자 한 이야기가 더 설득력을 얻었을 것 같다.

조정익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명희 권사



출가산

모임은 “용수산”

고품격 한정식 코스 요리와 다양한 일품요리 전문 용수산

예약 문의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전문작가와 함께 하는

내 인생의 자서전 쓰기

당신이 지금 여기에,
뜨겁게 숨쉬며 살았다는 건,
그 노동하고 찬란한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자서전을 통해
당신의 값진 순간은
눈부신 영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기독일보
T.(213)739-0403, (213)434-1170
www.cowriter.co.kr
chdailya@gmail.com

기록되지 않은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Record is Memory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사면: 귀신전) (1)

귀신에 적극 대응하는 무속과 손 놓은 교회



외계인에 의한 인류 창조와 종말 이야기를 전하는 <에이리언> 시리즈의 7번째 작품, <에이리언: 로물루스>.

한국인들 정신문화 강력 존재감 유력 사업가·정치, 연예계 등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력 미쳐 무당들 상담과 치료행위 직관적 혼령 힘 빌어, 정신과 육체 치유 체계성 없어 고등종교 발전 못해

한국인과 무속: 무속이 한국인의 정신문화 속에서 발휘하는 막강한 영향력

한국인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주는 '전통' 종교는 무엇일까? 이 물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교와 선불교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한다. 바로 '무속'이다. 기간으로만 따지자면 무속이 유교, 불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더 일찍 이 땅에 자리잡았다.

유교는 주전 200년경 위만의 무리를 비롯한 진나라 유민들이 고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한자와 함께 처음 전파된 것으로 추정되고, 불교는 주후 372년 고구려 소수림왕 당시 중국 승려에 의해 불상, 불경이 전해지면서 한반도에 퍼지기 시작했다. 반면 무속은 이미 선사시대부터 한반도 내부에서 자생하여 존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고려 때까지 국교의 위치를 차지했던 불교, 그리고 조선의 국교였던 유교 입장에서 본다면 무속은 괴력난신을 믿는 미개한 미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제대로 된 교육기관도, 의료기관도, 그리고 언론매체도 없던 시절 무당들은 실질적으로 각 향촌의 운명을 일러주는 카운셀러이자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의 역할을 맡았다.

무당들의 카운셀링과 치료 행위는 매우 직관적이었다. 그들은 무슨 심오한 도(道)나 철학적 이론을 가르치지 않았다. 무당들은 단지 혼령의 힘을 빌려 점을 치고 귀신의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정신과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을 보였다.

이들의 점술과 치유활동이 진정으로 효력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도무지 의지할 곳 없는 상태로 큰 어려움에 처하거나 병이 든 전근대 한반도 못 백성들에게 사면, 즉 무당이란 그야말로 삶의 마지막 희망, 최후의 보루나 다름이 없었다.

그렇지만 무속은 체계성이 없어, 고등종교로 발전할 수 없었다. 사면들은 신접하고 점치며 치유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고, 효력 또한 들쭉날쭉했다. 오죽하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겨났을까.

어쨌든 무속은 못 한국인들의 정신문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통종교 가운데 하나였고, 양자역학이나 뇌신경과학,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조차 꽤 많은 수의 한국인들에게 삶의 지침과 위로를 제공하고 있다.

서민이나 교육 수준이 낮은 이들만 무당을 찾는 것도 아니다. 무당에게 점을 보는 이들 가운데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 각자의 영역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대선 주자나 국회의원 후보들의 상당수는 선거 전 무당에게 당선 여부를 묻는다. 사업가들 중에도 어떻게 사업을 진행해야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는지 무당에게 묻는 이들이 많다.

일례로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어도

귀신이 영적 문제 원인이란 믿음 비과학 다양한 무당들 증언 일치 무조건 미신 치부할 수만은 없어 가톨릭 구마사제 직책 활용 대응 기독교는 명확한 대답 못 내놓아 무속인들조차 무시, 무력한 모습

어의 전 대표이사 민희진 프로듀서 같은 경우, 하이브로부터 자신의 사업체를 떼내기 위해 무당에게 문의한 뒤 행동방향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국인과 귀신: 귀신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무속과 손을 놓은 개신교

지난 7월 11일 티빙이 공개한 <사면: 귀신전>은 실제 귀신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무당을 찾아가 해결책을 구하는 사례들을 추적해 보도한 탐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한국인들이 영혼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당에게 의존하는 실정이 면밀하게 그려진다.

이 프로그램 속에 그려지는 무당들의 역할은 과거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신접한 이가 영적인 고민거리를 안고 찾아온 이를 위해 점을 치거나 굿판을 열어 문제 해결을 시도한다. 무당들이 내놓는 진단이나 대책이 다 제각각인데다가 과학적 근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주술로 귀결된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무당들의 증언 가운데는 분명한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죽은 자의 영혼, 즉 귀신이 영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믿음이다.

한국 기독교계는 개화기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장 큰 규모로 민족의 복음화를 달성했다. 기독교적 시각으로 볼 때 무속은 신접한 자에게 운명을 묻고 병고침을 구하는 이교적 풍습으로 인간의 영혼을 저주와 멸망으로 이끄는 악하고 부정적인 행위이다. 그래서 초기 한국선교 당시 기록이나 간증을 살펴보면, 기독교 사역자들과 무당 혹은 무속에 의존하는 이들 사이 의견충돌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 사회의 근대화, 산업화로 인해 무속의 힘은 과거 조선시대에 비해 많이 약해졌다. 여기에는 독실한 기독교인 독립운동가였던 이승만 전 대통령의 무속타파 운동의 영향도 있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농촌 근대화 및 계몽운동이었던 새마을 운동 영향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속의 영향력은 여전히 살아남아 오늘날 향촌뿐 아니라 도시 곳곳에서, 심지어는 온라인과 모바일 네트워크 속에서도 무당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아직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무속처럼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한국 기독교계뿐 아

니라 서구 기독교계 또한 마찬가지이다.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에 속한 영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그 구체적 정체에 대해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대어 몇 가지 추론을 제시할 뿐이다.

그에 비해 무속인들은 아주 직관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로 귀신을 죽은 자의 영혼이라고 말한다.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떠나, 대중적 설득력 측면에서 보면 직관적이고 단정적인 무속의 주장이 이론적이고 신중한 기독교계의 주장보다 훨씬 앞서서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꽤 많은 수의 무당들이 경험한 귀신들의 특징 가운데는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귀신의 특성과 일치하는 내용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귀신이 신접한 자들에게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삼상 28:6-25), 귀신들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질환을 일으킨다는 것(눅 8:26-39), 그리고 귀신들린 이들은 심한 병을 앓을 수 있다는 것(눅 13:10-13)과 같은 내용은 무당들의 증언과 성경의 가르침이 일치하고 있다.

무당들이 말하는 귀신의 특성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와 몇 가지 일치한다 해서, 귀신이 죽은 자의 영혼이라는 무당들의 말이 무조건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 기독교인들이 주지해야 할 점은 무당들의 영적 경험을 무조건 미신이라고 치부할 수만은 없다는 점,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바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귀신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이들에게 보다 온전한 기독교적 해결책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톨릭 교회는 구마사제라는 직책을 유지함으로써(이 방법이 옳든 옳지 않은 간에) 그나마 나름의 방식으로 초대교회의 모범에 따라 귀신 문제에 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반면 개신교회는 사실상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의 문제에 대해 거의 손을 놓은 모습이다. 심지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귀신으로 인한 문제를 순전히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보는 무신론자 혹은 과학주의자들의 입장에 동조하기도 한다.

이는 아직 근대 과학주의가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던 19세기 후반 주로 미국인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배우고 받아들인 한국 기독교계의 태생적 문제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저런 사정들 때문에 현재 한국교회는 그리스도와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귀신에 의해 고통받는 이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재현할 의지조차 갖추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독 귀신에 걸부된 영적인 문제에 대해 무속인들에게조차 무시당할 정도로 무지하고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다.



NEW COVENANT ACADEMY



CELEBRATING 25 YEARS

AN IB WORLD SCHOOL

ENROLLING NOW! K-12

Voted **#6 Best** Christian High School in CA

FOR MORE INFO



SCAN ME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213) 487-5437
NCAHUSKIES.ORG





- RIGOROUS ACADEMIC PROGRAM
- EFFECTIVE AND CARING TEACHERS
- SAFE AND NURTURING CAMPUS
- AFFORDABLE TUITION
- SOLID CHRISTIAN EDUCATION
- 100% UC ACCEPTANCE
- 10:1 STUDENT-TO-TEACHER RATIO
- WASC ACCREDITED
- SENIOR SAT AVERAGE: 1370

복음주의 신학교수들 “로잔, 교회 회복의 전환점 되길”

한국서의 대회 앞두고 환영과 조언 담은 입장문 발표

역사적으로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 강조
 ‘예수 유일성’, ‘동성에 비판’ 분명히 하길
 혼합주의적 방향으로 가는 것 경계해야
 반대운동까지 하는 것, 안타깝고 지나쳐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한국 복음주의 신학교수 일동’이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송도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앞두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9일 오후 서울 노량진에 있는 KWMA 사무실(CTS 9층)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1974년 제1차 로잔대회 이후, 50년 동안 세계 복음화와 전 세계 복음주의 운동 및 복음주의 신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한국교회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온 로잔대회가 50주년을 맞아 한국에서 개최되는 것은 한국교회에 큰 축복”이라며 “이번 로잔대회가 위기에 직면한 한국과 전 세계 교회의 갱신과 회복과 참된 부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1974년 7월 열린 제1차 로잔 세계복음화대회와 여기서 채택한 로잔언약은 우리 세대 안에 세계복음화를 이룩하자는 1910년 에든버러 선교대회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세계 복음화 운동을 하자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의 선교대회와 선언이었고, 극단적 분리주의를 반대하며 WCC 에큐메니칼 선교운동을 반대하여 일어났다”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은 성경의 무오성과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토대 위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가치를 내걸고 1966년 뤼튼대회와 베를린대회, 1974년 로잔대회, 1989년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대회, 2010년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로잔운동은 성경을 영감된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1974년 로잔언약, 1989년 마닐라선언, 2010년 케이프타운서약에서 분명히 천명했다. 2024년 9월 제4차 로잔대회는 종교다원주의적 현대 사회 속에서 계속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성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는 오늘의 사회 속에 성경의 창조 질서를 따라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이며 따라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로잔운동은 WCC적인 ‘하나님의 선교’(미시오 테이)와 달리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의 선교’ 전통을 유지, 계승, 발전시켜 가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복음주의 신앙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가 오늘의 삶 가운데서 현존하며, 성령의 다양한 역사가 교회를 역동적으로 만들고 신자들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는다. 이런 점에서 로잔운동은 성령의 역사가 자유롭게 나타나도록 격려해야 한다”며 “로잔운동은 신사도운동과 관상기도 등, 성경의 범주를 넘어서서 혼합주의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잘못된 성령운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조직신학자 김영한 박사는 참조발언에서 “로잔대회는 WCC의 ‘하나님의 선교’가 지나치게 사회선교적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려해, 복음주의 선교의 우선성을 강조하고 복음주의 선교에 부족한 사회적 책임 또한 강조하기 위해 복음주의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운동이다. 여기에는 성경의 무오성,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신사도운동 반대 등의 입장이 분명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 일부 목회자들이 로잔대회 반대 운동을 하고 성명까지 내는 것은 지나치고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김 박사는 “한국교회가 로잔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세계적·고전적 에큐메니칼 운동의 교회사적 흐름에 참여하는 것으로, 대다수 한국교회가 이러한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대단히 감사하다. 한국신학자들이 신근본주의적 입장에서 벗어나 교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주님의 복음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 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선교신학자 김성태 교수는 “복음은 특정한 문화에 종속되지 않고, 초문화적인 성격과 절대적·규범적 성경을 가진다”며 “로잔대회는 이러한 복음과 문화의 관계를 아주 잘 정리해서 소개하는 등 한국교회의 선교 발전에 상당히 도움을 주었다. 또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과의 관계성을 천명했는데, 1974년 로잔언약에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복음의 원리가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 증거되어 사회 변화를 일으키는 데 앞장섰다”고 했다.

김성태 교수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일종의 반작용으로서 전쟁의 원인을 상기하며 영혼 구원과 교회 설립을 중심으로 한 근본주의라는 함정에 빠졌는데, 사실 이것은 복음의 원리와 정신을 삶의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채 도피적인 성격을 띠었다”며 “그러한 가운데 WCC 운동이 급진적으로 흐르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로 복음과 복음의 실천이 삶의 현장에서 같이 가야 한다는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로잔언약문은 성경의 무오성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강조하며, 다원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했다. 복음이 서구교회의 독점물이 아니라 모든 문화



참석한 교수들과 KWMA 관계자들의 기념촬영 모습. ©KWMA

속에 편안하게 확장돼야 한다는 점과 도시선교 및 미전도종족 복음화를 강조하며, 세계 선교에 커다란 영향을 줬다”며 “제1차 로잔언약문을 중심으로 복음주의자들이 결속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2, 3차에 걸쳐 지금에 이르러 왔는데, 오늘날 로잔대회에 대한 우려가 일어나고 있다. 복음의 사회적 책임에서 더 나아가 사회적 행동을 강조하고, 단순한 복음 전도가 아닌 총체적인 선교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전적으로 타락한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데, 3차 대회에서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이 유기체적으로 동일하다고 선포했다”고 했다.

그는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를 말하지만, 정의 구현과 사회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다양한 조항에서 더욱 상세히 나타나면서 복음 전도의 우선순위가 흐려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의 선언문에서 ‘전통적인 교회의 복음 전도를 분명하게 지지한다’는 문구가 언급된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 복음주의 진영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신사도운동의 ‘영적 지도 그리기’, 유진 피터슨의 ‘관상기도’ 등도 언급하며 “우리가 더욱 건강하고 올바른 성경적 입장에서 영적 전쟁의 개념 등을 확실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로잔운동이 진정 공교회를 대표하는 수용성을 갖추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는 질문에 최형근 교수는 “로잔은 출발서부터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의 운동이고, 회원이 없다. 로잔운동과 정신에 동의하는 모든 복음운동가와 단체들이 함께 기도하고 우정을 나누며 전략을 논의하는 하나의 선교 운동으로서, 1차 로잔대회부터 3차 로잔대회에 이르기까지 선교 운동을 위한 플랫폼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복음주의 단체와 교단들이 복음의 내용을 갖고 올바르게 성경적인 선교를 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성명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로잔운동의 복음주의적 재해석은 에큐메니컬 진영에서 이야기하는, ‘교회를 제외하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상에 관여해서 사회·정치·경제적 의제를 다룬다’는 축소되고 환원적인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오히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공동체로서 선교적 의식을 갖고 있으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존재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정체성을 유지한다”고 했다.

또한 “선교를 위해 하나 되고 윤리적·도덕적으로 기록함을 유지하며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는 면에서 보편성과 사도성을 띠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로잔운동은 당연히 공교회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로잔신학자들도 그러한 공교회성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날 성명에는 박형용 교수(전 합동신학대원 총장,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역임), 김영한 교수(숭실대학교 명예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회장 역임), 강승삼 교수(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장 역임, KWMA 사무총장 및 대표회장 역임), 김성태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교학 명예교수, 한국 오픈도어 대표), 최형근 교수(서울신학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교회 회장), 구성모 교수(성결대학교 선교학 교수, 한국로잔신학위원회 위원장), 성남용 교수(총신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선교학 교수), 김성욱 교수(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원장 선교학 교수), 이승구 교수(합동신학대학원 석좌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한국개혁신학회 회장 역임), 이은선 교수(안양대학교 명예교수, 백석대학교 교수, 한국복음주의신학회 회장 역임), 박용규 교수(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한국기독교사연구소 소장)를 비롯한 139명의 복음주의 신학자가 동참했다. 강혜진 기자



2024 SPECIAL PROMOTION 개척교회를 위한 스페셜 프로모션

개척교회의 칼라복사기 비용을 40~60% 절약할 수 있는 기회!
 2024년 개척교회를 위한 칼라복사기 스페셜 프로모션이 완성되었습니다.
 10년미만된 개척교회를 위한 프로모션입니다. 기존교회들은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한 복사기의 옵션, 모델, 사용량, 렌탈 기간에 따라서
Special discounted price가 결정되며 교회들의 렌탈가격은 모두가 다릅니다.

텍스트로 본인의 성함과 교회명을 남겨주세요.
 전화드리고 간단 명료한 견적을 드리겠습니다.
 213 705 7778(KOR)
 TEL: 213 999 7995(ENG)
 213 663 8970(ENG)
 greenmwild@gmail.com

GREEN M.WILD IMAGESYSTEMS
 본사는 기독교일보 공식 후원업체입니다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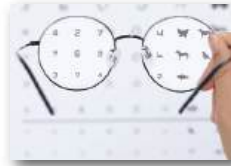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닌, 피페린, 빌베리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